

빛의 혁명이 만든 ‘다시 만난 세계’ 를 응원합니다

지난 주말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승리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윤석열 내란 수괴를 파면해야 합니다.

지난 십여 일 동안 우리는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민주주의는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폭력으로 일상을 파괴하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강력한 비폭력으로 무장한 용기를 품고 맞섰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선동에도 시민들은 다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특히, 청년이 정치의 주체로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2030세대, 특히 2030여성이 중심이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용감하게 싸웠고, 엄숙함을 뛰어넘어 함께 ‘어울림의 장’을 만들어 냈습니다.

촛불혁명은 토요일 밤의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과 ‘K-팝’이 함께하는 장면을 통해 존중과 연대는 같은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자본에게는 소비자로, 기득권 세력에게는 기껏해야 ‘배려’의 대상쯤으로 취급받던 젊은 여성들은 권력의 폭력적 지배욕에 정면으로 저항했습니다. 2030여성은 더는 기득권의 시선으로 호명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제 ‘빛의 혁명’은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저항을 넘어설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은 시작일 뿐입니다. 여성은 광장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모든 차별과 혐오, 불평등과 지배에 맞설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여성이 만들어 낸 ‘다시 만난 세계’를 응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평등한 일터, ‘독박’ 없는 삶, 여성 주권의 진정한 실현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뿌리 깊은 차별과 혐오에 맞서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넥스트 레벨’을 여성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성들이여! 이 순간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끝까지 감시다! 우리가 만날 세계는 이전의 세계와 다를 것입니다.

2024년 1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수진)